

베드로전서 1장

1.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체를 현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소아시아(혹은 터키): 터키의 중부지역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넓은 지역), 그 윗부분, 흑해에 임한 지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두니아, 본도(해변을 따라 길쭉함)라고 불렀다. 아랫부분에 조그마한 루기아, 밤빌리아가 있고, 동쪽에 제법 넓은 길리기아가 있다.

2. '흩어진 나그네'란 표현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유대인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이후에 생겨난 표현이다. 그러면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일까?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 교회의 출발은 개종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았지만 이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유대인을 의미하는 단어조차 영적인 유대인, 즉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로 변해버렸다.

3.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2)?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계획, 예정, 20, 행 2:23),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결단코 아니다.

4.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라고도 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도 한다.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에서 보면 나그네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함 받은 자이다: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의가 개종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채 소외된 삶을 사는 그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별된 존재라고 격려하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살지 말자.

5.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3, 5)?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예수님의 부활하심(3), 너희의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성령의) 능력(5)

6. 거듭난 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3, 5, 9)?

산 소망을 가지게 됨(3) 산 소망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는 것(=영원한 기업), 하늘에 관직하신 것(4, = 결코 빼앗기지 아니함),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5),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9),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5) 등이다.

7.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특별한 구원인가? 구원에도 보통 구원이 있고, 특별 구원이 있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가리킨다. 양자를 들인 경우에 법적으로(혹은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되었으나 실제로 아들의 지위를 누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8.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5)?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을 얻었지만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뜻이다.

9.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동의어인가?

아니다. 후자는 이미 얻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다. 켈빈주의의 5대 강령의 표현을 인용하면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 번 믿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10.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기쁨만 넘치는 게 아닌가?

근심할 일도 있게 마련이다(6). 잠깐 근심과 크게 기뻐함이 대조를 이룬다. 없던 시험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잘 이겨내면 엄청난 복이 기다리는 시험이다. 베드로는 내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무렵에 이런 시련을 예상하고 이 글을 쓴 것 같다.

11.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시험(=믿음의 시련)이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7).

12.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7)? 볼로 연단하는데 왜 없어지나?

볼로 연단하여 잘 제련된 금도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지만(18) 구원을 이룬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금과 믿음의 공통점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 순수하게 되며 귀한 것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금은 일시적(없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영원하다.

13.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6, 8-9)?

영혼의 구원: 이것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어야 한다. 혹시나 물질의 풍부함이나 욕심을 이룬 탓이 지 않은가?

1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무엇을 찾으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얻으실 영광이 어느 때인지(11) = 너희에게 임(할)한 은혜(11): 선지자들이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스스로 상고했다는 것은 자신들도 내용을 다 모른 채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5.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던 것(10), 너희를 위한 것(계시로 알게 된),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전하여진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12)'은 성도들의 믿음과 무슨 관계인가?
믿음(구원)의 내용(10절의 구원에 대하여) 곧 복음(12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고한 것'):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천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귀중한 것이다(눅 10:24).
16.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져오실 은혜(13):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내세주의자이다. 현실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 현실주의자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매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은 건전한 내세주의자가 현실주의자보다 더욱 현실적일 수 있다.
17. 세상의 온갖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분명한 가치관(믿음, 신념, 소신, 등)이 있어야 한다. 본문의 표현(14-17)을 빌려서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17):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끌려들어 갈 수 없다. 내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되는 출발점이다.
18. 그리스도의 피가 은이나 금보다 더 보배로운 이유는 무엇인가(18-19)?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다(23, 25): 일반적으로 본다면 은이나 금은 육신에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야겠지만 18절에서는 '영원성'이 옳다.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교회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한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 창세전에 예수가 알려졌다고(20)? 나타나기는 말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 즉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말이다(2).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나타나실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던 일이다. 구속사의 전 과정은 어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다.
20. 20-21절을 다음과 같이 () 부분을 생략하고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끝 부분의 '있게 하신 이는 누구일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 곧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아시고,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도,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21.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더니(3-21)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22.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23).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것 아니고? 아니, 세례라고 하던데?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이고(10-12)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 불신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거듭나게 해야 한다(롬 10:17).

베드로전서 2장

1. 1절의 '그러므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궤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1장의 결론, 즉 23-25절): 이미 구원받은 자가 다음 단계, 곧 성화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한다. '모든'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된 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뜻이다.

2. 어떻게 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궤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을까?

갓나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방법이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다(신 8:2, 고전 3:2, 수 1:8). 악한 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악한 것에 눈이 더 밝아지거나 닳아가기도 한다. 차라리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낫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3) 그 분의 인자하심을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것이 가장 낫고 쉬운 길이다.

그런 점에서 1절과 2절은 대조를 이룬다. '모든 악독과 모든 궤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버리고'와 '사모하라'.

3.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2)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3): 좋은 음식에 맛들인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한다. 분유 회사에서 병원의 분만실에 자사 분유를 공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신생아조차도 처음에 맛을 본 것 외에는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란단다. 건강하게 살려면 옛날에는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고 했다. 요즈음엔 좋은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제대로 자란다(=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엡 4:13-15).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성도는 어떻게 된 결과? 음식이 당기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아니면 엉뚱한 간식을 즐기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히 5:11-14).

4. 닥쳐오는 시련을 잘 견뎌내도록 권하는 말씀이 숨어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는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4)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사람의 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라고 은연중에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라고 한다.

5. 산 돌(Living Stone)이 뭐야? 이 산 돌이 신령한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버려진 돌(쓸모없는 돌)의 반대개념이며 메시아를 가리킨다. 요긴한 돌이란 뜻으로, 이 산 돌을 기초로 해서 작은 산 돌인 성도들이 신령한 집을 이룬다: 메시아를 돌(마 21:42, 단 2:34)이나 반석(고전 10:4, 3:11)에 비유했는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산 돌'이다.

개인으로서 성도들은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야 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는 서로 연합하여 집을(교회)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젖이요, 기초석이다. 교회(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이다. 동시에 이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한다.

6. 예수는 모퉁이 돌이기도 하고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이기도 하다. 누구 탓인가?

믿는 자(6-7a)와 믿지 아니하는 자(7b-8) 탓이다: 믿는 자에게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겠지만(사 28:16 인용)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사 8:14 인용)이다.

같은 돌을 두고 한 사람은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 아, 쪽 팔려! 넘어져서, 잘 세워진 집을 쳐다보자면 얼마나 애통하겠는가! 신경질이 나서 파버리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은 땅 속에 파묻힌 부분이 너무 커서 파낼 수도 없는 돌(=기초석)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곳을 받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또 다른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 형제와 하나님, 부부가 하나됨, 성도가 하나됨은 예수라는 튼튼한 돌 위에 기초를 두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

7. 다음 구절은 말이 이상하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7)? 믿는 자에게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는데(6) 어떻게 된 걸까?

인용된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는 부분이 인용된 것인데 그 의미를 살려서 '참으로 애통한 일이 되고'로 바꾸어 넣어보면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건축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부류이다. 인용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성경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끊어 읽으면 될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니라' 이렇게 끊어서 인용된 부분을 한꺼번에 읽어야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망친다.

8.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8)에서 '이렇게'는 '순종치 아니함'인가, '넘어짐'인가? 6절의 인용문과 대조해서 생각해보자.

넘어짐이다: 6절의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함'이 성도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이라면 8절의 '넘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시 이것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해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도록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잖아? 그렇다. 그렇지만 '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맞다. 어느 말을 따를 것인가? 결국 선택은 본인에게 달린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9. 다음 각각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임을 설명하는가?

택하신 족속(사 43:20): 낙점이란 말이 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선택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런 일일까? 대학 입시나 고시에 합격한 것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새로운 선민이다.

왕같은 제사장(계 1:6, 출 19:6): 그리스도인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의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제사장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한때 범죄하여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간의 중보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마 27:51, 히 10:19-20 만민제사장주의).

거룩한 나라(출 19:6): 거룩이란 구별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쓰셨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맡았음을 말한다. 그 분과 특별한 관계, 즉 그 분의 통치에 있음을 말한다.

그의 소유된 백성(신 7:8, 말 3:17):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연인 사이에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함 =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9)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혼자서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빛에 들어간 성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빛이어야 한다.

11. 그리스도인의 구원 과정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어둠과 빛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영원한 죽음(=죄),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표현이 더 실감나고 멋이 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비유로 표현하면 내용이 훨씬 쉽고 부드럽워진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 정도로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했을까? 성령을 받은 탓일까? 대필했던 실루아노의 덕일까?

12. 베드로는 은근히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 다음의 _____ 친 부분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생각해서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호세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로암미, 호 1:9)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암미, 호 1:10)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로루하마, 호 1:6)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루하마, 호 2:23).

13.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본 집(들)갈 곳이 따로 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11)은 육체는 나 타난 현상 일뿐 본질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잡혀 살고 있지만 이것을 제어하여 영혼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은 육체가 임시 거하는 곳이다.

14.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다: 몸이 괴롭고 힘이 들지는 몰라도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이것이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데에도(15) 가장 좋은 방법이다.

15. 13절 이하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순복: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라. 이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褒獎) 칭찬하

여 장려할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다.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은 아니다. '주를 위하여' 이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이다. 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뭇사람, 주인, 형제도 공경하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피를 뿌리라고 선동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힘은 순복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했다. 간혹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 있긴 했지만 예수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16. 자유와 하나님의 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16)? 하나님의 종은 자유자인가? 종이 어떻게 자유자가 되는가? (참고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니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에서 자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자가 될까? 13절 이하의 문맥을 잘 살펴가며 생각해 보자.)

자발적인 순종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자유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12) 기꺼이 순복할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뭇사람, 주인, 형제도 공경하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을 할 때 어머니로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린다. 종노릇도 그런 종노릇이 없을 텐데... 그런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자유자다.

17. 부모님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순복해야 한다(18):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말씀은 순복해야 하는 근거가 주인의 성품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물며 부모에게 순복해야 하는 근거도 역시 그분들의 옳고 그름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우선 순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야 한다.

18. 고약한 주인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주인에게 받지 못한 은혜(=아름다우나)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시므이에게 옥을 들고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참았던 다윗이나(삼하 16:10-12), 이유 없이 옥에 갇힌 요셉(창 40장), 억울하게 매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행 16:19-34)를 들 수 있다.

19.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참아야지: 참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뻔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은 죄를 짓고 매 맞으면서 참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20.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21).

21. 예수의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22-25절을 사 53장과 비교해 보자. 어떤 표현이 같은가?

입에 꾀사가 없음(사 53:9), 옥을 받으시되 대신 옥하지 아니하시고(사 53:7),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사 53:5),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사 53: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사 53:6)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잘 참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리해야 하지 않는가?

22. 예수께서 이렇게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24):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죄의식도, 죄로 말미암은 심판도 우리와 상관없고, 오직 의로 말미암은 상급만 우리와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어떻게?

2장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순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 같다: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방백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형편에서 본다면 이교도인 남편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아내가 개종시킨다는 것은 이런 순복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깨는 수밖에 없었다.

지위나 능력이 열등해서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가정에도 이런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하는 말이다.

2. '말로 말미암지 않고'에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에게 행한 '아내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

'말'은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뜻하는 것이고 '아내의 행위'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1)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순종하기 좋은 말만 했을까?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요구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순복하라고 한다. 믿지 않는 남편의 요구에 본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순종하라는 것이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순교자적인 자세로 순종할 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구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3.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내의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위를 통하여(2)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결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비단 남편과 아내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4.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것은(3)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장신구를 달거나 화장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을 금하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을 여자들이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하면 비블리시즘(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빠진 셈이다. 말씀의 진의를 잘못 파악하면 우리는 부모 형제도, 재산도 버리고(마 19:29, 막 10:29, 눅 18:29) 밥도 먹지 말고(마 4:4, 눅 4:4) 오직 복음만 외치다가(딤후 4:2) 바로 굶어죽어야 한다.

본문의 핵심은 외모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단장하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들이 단장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 단장하고, 화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다. 외모를 단장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이다.

5. 마음에 숨은 사람(속 사람, 곧 마음)을 무엇으로 단장하는가?

온유함과 안정함: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는 썩을지라도(?) 이것은 썩지 않으므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가리키고, 안정함이란 타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성품이라면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다.

6.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으면서 외모만 아름답게 치장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 구원은 물 건너갔다. 믿는 남편을 둔 경우라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불가능하다. 남편의 구원은 모든 배알을 다 버리고(순복하라니까) 염을 만큼 깊어치가 있는 것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7.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같은 말: 선을 행하는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고(온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은 남편의 억지나 부당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안정)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사라의 딸, 곧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이다.

8.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7절)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1-6)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절과 7절에 공통으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이 기나 짧으나 원리는 같다는 뜻이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능력이 없음에도 가정의 대표로 당당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가? 슈퍼맨의 비애라는 노래가 그래서 나온 모양이다.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9. 무식하게 아내와 동거하는 자가 있는가?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성관계, 관심사항, 언어, 사고방식...) 그래서 한 사람은 '안 해준 게 뭐고?' 하고, 또 한 사람은 '해준 게 뭐고?' 한다. 제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바란다. 바이올린 줄을 기타 줄 매듯이 하다가는 판판이 터져 버린다. 악기를 다루려면 악기마다 줄의 굵기나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내는 남편과 전혀 다른 종류의, 연약한 그릇이며, 동시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공부 많이 해야 한다.

10.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더 연약한 그릇: 남자보다 훨씬 더 센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여기면 꼭 말이 나 더라. 아무리 거세고 강한 여자라도 여자로서 다루어져야 하고,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여기고 더 귀히 여겨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다. 재판장 앞에서 '그게 아닌데' 하면 어떻게 되지?

11.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왜 기도가 막힐까?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

12.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서 '마지막이 본론만큼이나 긴 경우도 많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일까?

아니다: 현 위치가 베드로전서의 중간지점이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다! 위치상으로는 그렇고 내용상으로는? 아마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 아닐까? 2:18부터 시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모양이다.

13.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복이 전해지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이다. 아브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미이다.

14.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사랑할까(8-12 요약)?

서로 복을 빌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도 좋으나 표가 잘 나지 않으니 서로 복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형제 사랑의 방법 같다.

15.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사람과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주의 낫이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12) 이 말을 인용한 원문을 찾아보라(시 34:15-16).

심판의 의미이다: '여호와와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데다.' 시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만 인용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시편을 잘 모르는 우리가 잘못인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연스런 표현이란다.

16.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선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3-17절과 18-22절의 문맥을 파악해서 두 가지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17).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14) 선을 행한다고 해롭게 할 자가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 뒤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란 말씀이 그 반증이다. 육체적인 해가 영혼까지 해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복이 있기 때문이다(14)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문맥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 같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18-22).

17. 두렵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 받는 것도 복이기 때문이다(14),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15).

18.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겁을 먹지 않으면 겁을 주던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행하면 두렵게 하던 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

너희는 왜 죽음(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핍박하던 자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란다. 일제시대에 고난 받던 성도들이 무엇을 믿으며 어떤 생각으로 일제에 항거했는지 자신들은 대부분 아무런 글을 남겨두지 않았다.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 검사들이 성도들을 조사하여 내용을 조리 있게 기록해 두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한 수재들을 자신들의 신앙을 글로 쓰는 조수로 사용한 셈이다. 자신의 신앙하는 바를 조리 있게 대답하도록 하라는 권고이다.

19.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눅 12:10-12, 21:13-14)과 왜 다르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대답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들어서 더 크게 쓰신다. 대답 중에 최상의 대답은 선행이다(16, 17). 대답할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살라는 뜻이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20. 15절에서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고 14절에서는 두려워 말라고 한다. 어느 말이 맞는 거야?

15절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21.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양심이 있다. 악한 양심, 악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남의 양심, 확인 맞은 양심, 청결한 양심, 더러운 양심... 그러면 선한 양심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인이 선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 해야겠다.

22.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거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그게 그거지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양심만 있어도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과 악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23. 19절은 해석상 논란이 많은 구절이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나 그렇게 말할만한 근거가 성경에는 달리 없다. 논란이 많고 의미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냥 넘어가자.

24. 베드로는 앞으로 닥쳐오는 환란을 은연중에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고 있는 셈이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셈인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동안 순종할 것: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무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덟 명처럼 구원을 얻으라. 방주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 방주는 곧 교회를 상징한다.

25. 홍수 때 세상을 덮은 물은 온 세상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노아의 가족은 그 물에서 견뎌냄을 받았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이렇게 죽을 물에서 견뎌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씻는 표인가?

마음: 선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란 마음의 죄를 씻는다는 뜻이다.

26.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통과한 결과는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낮아지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런 문맥에서 본다면 난해한 19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1)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가 어찌 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철로에 넘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가 목숨을 버렸을 때 온 일본이 감격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지나간 것만도 족하니까(3)

2. 갑옷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옷이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이,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갑옷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믿는 자(=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는 사탄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다. '죄를 그쳤으니'라는 말은 '죄와 상관없으니'라는 말이다.

3.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宴樂)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들이다(아무래도 술이 주원인이다). 죄는 이런 것들을 통해 역사한다. 이런 것들이 주는 유혹을 어떻게 한꺼번에 끊어버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온유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갑옷이라고 한다.

4.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2) 표현은 조금 달라 보여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5.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하는 말이다.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신나는 일을 왜 안 하지? 바보 아냐? 불신자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6.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는 자들이 지금은 신이 나서 떠들지 몰라도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 (참고로, 직고(直告)의 의미는 '직접 고한다'가 아니다. 앞에 한 단어를 보충해 보면 쉽다)

하나님께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러면 죽어나겠지. 직고는 '사실대로 고한다'는 뜻이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 11:9)

7.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죽은 후에 전파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다(사도신경의 '산 자와 죽은 자' 참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육체는 심판을 받으나(죽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 2절은 이렇게 살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그런 다음 죽기는 하지만(육체는 심판을 받으나) 다음 세상에서는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8.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자세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도 하셨고, 언제 오실지 자신도 모른다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들이 땡땡이를 치고 있으면(눅 12:35-40)

9. 다음 () 안에 알맞은 단어를 하나만 넣어 보자.

'사랑은 () , 대접은 () 없이, 봉사는 () 하라'

열심히, 원망, 서로: 사랑도 열심히 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생각도 하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저절로 되는 사랑,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연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대접하면서 왜 원망이 생기나?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손님까지? 초대교회에서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힘들더라도 기꺼이 이들을 대접하라고 권한다. 봉사도 하는 사람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묵나?'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서로 서로 봉사하고 도와야 한다.

10.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서 다른 측면에서 성도를 섬겨야 한다. 어느 단어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가?

10절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롬 12:6, 고전 12:7) 서로 봉사하게 하셨다.

11. 어렵게 사는 성도도 많지만 때로는 고위직에 있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능력을 소유한 성도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없는 척하고 살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면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알고 성실한 관리자의 임무를 다 하면 어려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맡기신 주인이 있음을 알면 기도하게 되고, 내 것이 아님을 알면 어려운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12.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의 말인가?' 본문의 표현을 이용해서 답을 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다: 전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신중하게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편견이나 지식에 좌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11절의 '말'이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이런 자세로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3.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서도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금 열심을 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일을 좀 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많은 재물을 누리게 될 때라도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실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다(신 8:17-18).

14.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다(고전 3:9, 막 16:20).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상이 본문 어디에 있는가?

11절: 성도가 말하고 봉사하더라도 일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다. 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동역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성도들의 말과 봉사가 아무리 진지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성도는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삶의 의미가 있다.

15. 처음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생기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12): 자식을 빼앗긴 사탄이 발악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그런 시험을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더욱 크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단련시키시는 데에 사용하신다. 마치 금속을 불로 제련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과 같다(계 3:18, 벧전 1:7). 그 후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13).

16. 시련이나 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13): 시험을 당하는 것이나 욕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며(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신다.

17. 고난도 고난 나름이지 아무 고난이나 다 복된 것은 아니다. 고난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외에는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런 경우에는 고난이 아니라 벌이다.

18. 베드로가 이런 말을 다 하다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그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게 죄질이 돼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나처럼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 같다.

19.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렘 25:29, 겔 9:6).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여긴다(17).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겨우(?) 구원을 얻는다(18-19). 왜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할까? 롬 8:37, 벧후 1:11에서는 넉넉히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1)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방탕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부분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고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이나 유혹의 위험을 극

복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겨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본다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만 시련을 당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과정을 간신히 이겨낸 셈이다. 믿는 성도가 이렇게 어렵게 불 시험을 통과한다면(12)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지 생각해 보라며 격려하는 말씀이다.

20. 시련이 아무리 거세고 강하다고 해도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한다: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하라.

연락(宴樂): 먹고 마시는 연회의 즐거움(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

베드로전서 5장

1. 초대교회 때부터 장로가 있었네? 목사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
 오늘날 장로교회의 장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세워진 제도이다. 용어와 의미를 성경에서 빌려왔으니 같다고 해도 될까? 구약에서는 나이 많은 어른을 일컫는 말이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맡아 있는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 감독이라는 뜻이다(행 11:30, 14:23).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자이다. 목자장 되신 예수의 위임을 받은 작은 목자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오늘날의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목사도 장로의 일종으로 가르치는 장로이다.
2.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말하는가?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에: 이게 어떻게 권면의 근거가 되는 걸까? 같은 장로로서 장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자신은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어려운 일이긴 해도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면 보람된 일이다.
3. 함께 장로 된 자? 이 편지를 받는 장로들과 베드로는 같은 장로일까?
베드로의 겸손한 표현이다: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인가? 도저히 그럴 수 없음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한참 후배인 장로가 자신을 장로로 세운 장로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기본이 안된 사람이다.
4. 성도들을, 혹은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면 되지 왜 '양 무리를 치라'고 할까?
베드로에게는 이 표현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요 21:15-17).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었고, 이제는 다른 장로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다.
5. 부인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온 분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는 완전히 물귀신' 이란다. '한 번만 가자고 해놓고 또 가자 하고, 주일 낮에 갔더니 밤에도 가자고 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중에는 새벽에도 가자고 할 거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열심을 쯤 내려면 끝도 없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힘든 일에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2)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설교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는 것과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식구가 다 굶어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
6.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이나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본능을 억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렇지만 양 무리를 치는 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3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분이 되라: 양 무리를 권세로 다스리지 말고 먼저 본을 보여 따라오게(자발적인 순종) 하라는 것이다. 정말 어렵다! 남의 아이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못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아이에게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억제하고 온유와 인내로 대하기가 어렵다. 밖에 나가면 어진 사람이, 자기 식구에게 그렇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말기운 자들'이란 직역한다면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인 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는데(수 18:10),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 보라.
7.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면 시드는 면류관도 있다는 얘긴데?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것으로 월계수 가지로 만들었다. 그러니 시들 수밖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목자장)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다.
8. 5절의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란 뜻인가?
장로들이 목자장 되신 예수께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하듯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신하는데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9. 순복하고 겸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나 다윗이다. 특히 무능(?)해 보이는 듯한 이삭이 별 고생 없이 복을 누린 것을 보라.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10.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굴일 수도 있다. 겸손이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일 수 있는 미덕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6):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도 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56) 이유가 바로 겸손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1. 권고? 타이른다는 말(勸告) 아냐? 염려를 다 말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타이른다고?

아니다. 眷顧(권고)는 돌본다는 뜻이다. 勸告와 다른 말이다. 방주 속에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권념(眷念)하셨다고 한다(창 8:1). 돌아보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12. 사자가 왜 울까? 마귀가 왜 우는 사자와 같을까? 우는 사자를 대적한다고 울음을 그칠까? 우는 사자란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가리킨다. 배부른 사자는 전혀 두렵지 않지만, 배고픈 사자는 목숨을 걸고 덤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사자는 대적해도 덤비겠지만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정신 차려도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방법이 있으니 근신하고(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13.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가 되는가?

너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마귀의 하는 짓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임을 알라는 의미이다.

14.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성도들에게 속한 것의 가장 큰 차이를 10-12절에서 찾는다면?

영원함과 잠깐: 영광이든 권력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하고, 아무리 혹심한 고난일지라도 이 땅의 성도가 가진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된다.

15. 하나님을 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10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하나님과 같은 말이다. 바로 그 분께서 친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16. 베드로전후서는 원어상 문체가 화려한 헬라어로 기록되었단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화려한 헬라어로 글을 남겼을까?

실루아노의 대필 덕분이다(12): 실라라고도 한다. 한 때 예루살렘 공의회 of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행 15:22, 27).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동행했고(행 16장), 베드로와도 동역하였다. 기록한 장소는 바벨론이다(13, =로마). 베드로는 AD 63년 말에 로마에 왔다. 네로의 박해는 AD 64년에 시작되었다.

17. 도청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암호처럼 사용한다. '폭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요리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 '폭격하라'는 말을 '요리하라'고 하는 식이다. 아마 베드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13): 원어에는 교회란 말이 없이 '그 여자'라고 되어있다. 영어 성경은 'She who is in Babylon'이라고 직역을 했다. 성도들이야 금방 알아들지만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AD 63년 말에 로마에 왔다. 네로의 박해는 AD 64년에 시작되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려는 마당에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지혜롭다. 이 표현을 보고 베드로전서가 바벨론에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18. 베드로에게 마가라는 아들이 있었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아닌가? 마가와 실루아노는 무슨 관계일까?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을 때 바울이 마가대신 선택한 사람이 실라(실루아노)였다. 마가 입장에서는 스승을 빼앗긴 사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19.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으니 성도는 이런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과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를 내포하는 것이다. 어떤 사이비 한국의 목사들(?) 중에도 이 구절을 그대로 애용하는 분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

20.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베드로는 작별인사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성도가 머물러야 할 토대는 바로 은혜이다(12b). 그 위에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